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들은 눈이 가리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루카 24,15-16)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김육순 수녀작

**[제1독서]** ..... 사도 2,14.22ㄴ-33

**[화답송]** ..... 시편 16(15),1-2ㄱ과 5.7-8.9-10.11  
(◎ 11ㄱ 참조)

◎ 주님, 당신은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시나이다.



- 하느님, 저를 지켜 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나이다. 주님께 아뢰나이다.  
“당신은 저의 주님.” 주님은 제 몫의 유산, 저의 잔.  
당신이 제 운명의 제비를 쥐고 계시나이다.◎
- 저를 타이르시는 주님 찬미하오니, 한밤에도 제 양심이 저를 깨우나이다.  
언제나 제가 주님을 모시어, 당신이 제 오른쪽에 계시니  
저는 흔들리지 않으리이다.◎

- 제 마음 기뻐하고 제 영혼 뛰노니, 제 육신도 편안히 쉬리이다.  
당신은 제 영혼 저승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구령을 보지 않게 하시나이다.◎
- 당신이 저에게 생명의 길 가르치시니, 당신 얼굴 뵈으며  
기쁨에 넘치고, 당신 오른쪽에서 길이 평안하리이다.◎

**[제2독서]** ..... 1베드 1,17-21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 예수님, 저희에게 성경을 풀이해 주소서.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저희 마음이 타오르게 하소서.◎

**[복음]** ..... 루카 24,13-35

## 빵을 떼실 때에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주간 첫날 바로 그날 예수님의<sup>13</sup>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루스타디온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14 그들은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였다.

15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16 그들은 눈이 가리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17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걸어가면서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한 채 멈추어 섰다. 18 그들 가운데 한 사람, 클레오파스라는 이가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면서 이 며칠 동안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른다는 말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19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하시자 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느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20 그런데 우리의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였습니다.

21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지도 벌써 사흘째가 됩니다.

22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으로 갔다가, 23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발현까지 보았는데 그분께서 살아 계시다고 천사들이 알려 주더랍니다.

24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25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아, 어리석은 자들이!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데에 마음이 어찌 이리 굵뜨냐?”

26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27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28 그들이 찾아가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서는 더 멀리 가려고 하시는 듯하였다. 29 그러자 그들은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때가 되어 가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하며 그분을 붙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그 집에 들어가셨다.

30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31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32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33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와 동료들이 모여,

34 “정녕 주님께서 되살아나시어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35 그들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 복음 묵상

오늘 제1독서는 유대인들이 봄 추수를 감사하며 하느님의 율법 수여를 기념하는 오순절에, 약속된 성령을 받은 직후 베드로 사도가 행한 첫 설교입니다. 베드로는 이 설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신앙을 요약합니다.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예수님께서서는 유대인들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다시 살아나시어 죽음의 힘으로부터 벗어나 영광스럽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는 이들에게 약속된 성령을 부어 주셨음을 담대히 선포합니다.

복음 속 엠마오의 두 제자도 베드로의 이 확신에 찬 설교를 전적으로 지지하였음에 틀림없습니다. 사실상 파스카의 첫 외침인 “정녕 주님께서 되살아나시어 시몬(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 는 이야기를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과 함께 공유하였을 뿐 아니라, 자신들이 엠마오로 가던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비로소 알아보게 되어 그들 마음이 타오르는 체험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제2독서를 통하여 우리 믿는 이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뵈는 뜨거운 체험과 약속된 성령을 받아 가지게 된 담대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그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시고 영광을 주시어, 여러분의 믿음과 희망이 하느님을 향하게 해주셨습니다.”

침통한 표정과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갈 뻔하였던 지상의 나그네살이를, 마음이 타오르는 믿음으로 하느님을 향하게 하는 희망이 되게 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지금 이 부활 시기만이 아니라 우리 일생 전체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하게 이야기해야 할 이유를 오늘 독서와 복음에서 찾습니다. <박기석 사도요한 신부>



본당 미사 중계

<http://www.stpaulchung.org/mass.html>

• 성 정바로 성당 웹사이트를 통해 **본당 미사를 생중계**하니 신자들은 가정에서 미사 참례를 하시기 바랍니다.

1. 매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에 사제관 경당에서 사제들이 미사를 봉헌합니다. 교우들은 **평화방송** 또는 **유튜브 TV 매일미사**를 시청하시며 함께 참례하시고 신영성체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2. 매일 **밤 9시**에 신자들을 향해 사제의 강복으로 **한마음 기도 시간**을 갖고 있으니 교우 여러분들도 같은 시간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한반도의 평화, 본당의 일치와 화합을 위하여 **주모경 1회**
- ② **코로나-19 극복을 청하는 기도**
- ③ **코로나-19의 피해자들과 의료진 및 봉사자, 각자의 지향으로 묵주기도 5단**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성사에 대하여

- **병자성사 및 병자 영성체** : 죽음에 임박한 경우에 한해서 시행합니다.
- **혼인 및 장례예식** : 혼인예식을 연기하지 못하는 상황과 장례예식은 10명 이하의 직계 가족 참석하에 거행할 수 있습니다.
- **신영성체** : 영적(마음)으로 성체를 모시는 것으로, 준비가 부족하거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실제로 성체를 영하지 못하는 경우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과 사랑 안에서 성체를 모시고자 하는 원의를 지닌다면 성체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신영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의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아멘.

매일미사 책 우편 송부

- ‘매일미사’ 구독자 중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성명(세례명), 주소, 연락처**를 사무실이나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한성은 모니카(571-331-0391)

본당 승격 25주년 준비

- 코로나-19 상황으로 본당 승격 25주년 준비 작업에 차질이 많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묵주기도 100만단 봉헌, 성경 필사 및 성경 읽기, 기념집을 위한 원고, 기념 표어 공모에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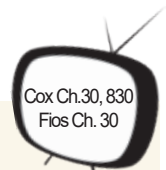
2020 주교님 사목 보조비(BLA)

- 주교님 사목 보조비에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 본당은 **BLA 목표 금액의 74%**를 달성했습니다. 아직 봉헌하지 못하신 분들께 조금만 더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무실 업무 안내

-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성당 사무실은 예전과 같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고해성사, 장례예식, 개별 미사 지향, 교무금, 주교님 사목 보조비(BLA) 등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에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03-968-3010)

버지니아 성 정바로 성당 제공 KACM TV 하이라이트



- 4월 30일(목) 오후 5:00-6:00 • **특집: 임 따라 한평생 -**
- 5월 1일(금) 저녁 8:00-9:00 **사제와 신학자, 한 교구의 수장으로 50년**
- 5월 3일(일) 오전 6:00-7:00 **이병호 전 전주교구장**



AM 1310 라디오 가톨릭 프로그램

- 4월 29일(수) 오전 6:15-6:45 | 5월 2일(토) 오전 8:00-8:30
- 워싱턴 가톨릭 소식 • 윤원진 신부님의 강의 ‘위대한 성인’ (5편)

※ www.dc1310.com에서 ▶ 생방송 듣기를 선택하시면 스마트폰을 통해 생방송으로 청취를 하실 수 있습니다



<b>RE/MAX Gateway 부동산</b> www.Rachael.Kim.com 레이첼 김(아네스) 703-652-5790 Cell. 703-774-8945	<b>정재민 치과</b> 센터빌스퀘어(Centreville Square) 정재민(미카엘) DMD, PC 703-825-1191	<b>허진 변호사</b> attorneyhuh24.com 민사, 형사, 소송재판 전문 허진(세바스찬) 703-288-1515	<b>문스 자동차 정비</b> VA 인스펙션 오일체인지, 각종 자동차정비 이병일 (다니엘) 703-266-1983	<b>재노 오 부동산</b> Keller Williams Realty 재노 오 (로사) 703-772-7275
<b>마이키즈 소아/청소년과</b> mykidspediatricians.com 정소연(크리스티나) 703-865-5437	<b>영스 헬스케어</b> 간병사,간호사,물리치료 서비스 김경해 (아네스) 703-647-0292	<b>김돈현 가정의학적전문의</b> Fairfax Family Medicine Center Michael D. Kim, MD 703-591-4100	<b>베스트 사인</b> 간판 / 네온 / 박스 / 현수막 전광판 / 배너 / 메뉴판 703-887-1515	<b>뉴잉톤 오토바디</b> 자동차 바디, 정비, 페인트 김명곤(바오로) 703-455-0008 Cell. 571-243-5037
<b>안 아픈 세상(양방/한방)</b> 교통사고보험 인정 병원 척추신경과, 치료맞사지과 한방나라 이현찬 한의원 703-658-5100	<b>시티 종합 보험</b> 자동차, 주택, 비즈니스, 생명 김수현 (엘리사벳) 703-352-1073	<b>Lee's Heating &amp; Air</b> 히팅 & 에어컨 이일우 (베드로) 703-675-8009	<b>골프 레슨</b> 성인레슨 및 원포인트 가능 초보, 학생, 여성 골프 환영 레지나 703-832-7155	<b>소아전문 치과</b> Pediatric Dental Care Dr. John Han (한장협) Fairfax 703-383-3434 Springfield 703-992-7100
<b>시원 냉난방</b> 에어컨, 히팅, 플러밍 김연철 (윌리엄) 703-362-7770	<b>민기호 내과</b> John Min M.D. 703-462-8711	<b>척추사랑</b> 교통사고/척추신경/손, 발 통증 병원 Dr. 이현훈 (마르코) 센터빌,챌러리 703-429-4622 락빌 MD 301-231-7588	<b>생명보험 · 메디케어 은퇴연금 · 사업체 보험</b> 홍마태오 703-969-8956 박소피아 703-969-8954	<b>커머셜 김준 부동산</b> 상업용, 투자용 건물 매매 리테일 / 오피스 리스 202-384-7301
<b>한미 소독</b> 가정집, 상점 (STORE) 하홍엽 (요한) 703-451-3322	<b>와니 건축</b> In & Out 핸드맨 Service 부엌, 화장실, 텍 권태완 (빈센트) 571-331-6811	<b>민 자동차 정비</b> 703-869-9691	<b>원 통증 · 재활</b> Woodbridge 지역 메디케어, 각종 보험 571-659-2540	<b>뉴욕라이프</b> 생명보험, 은퇴연금 자녀 저축보험 박수미(미카엘라) 571-263-1033
<b>정수정 부동산</b> Keller Williams Realty 정수정 (안나) 703-855-8575	<b>영스 히팅</b> 에어컨, 히팅 703-728-3160	<b>석성현(요한) 신경내과 MD</b> 두통, 치매, 파킨슨, Stroke, 손떨림 Vienna, Tysons Corner 근처 703-828-3373	<b>제니스김 부동산</b> Keller Williams Realty 제니스김 (베로니카) 571-723-6172	<b>Euromotor Cars Mercedes-Benz</b> 유스티노 한 703-855-8710
<b>Kim's Auto Service</b> 자동차 정비 703-425-4600	<b>영스 노인 복지센터</b> 주정부 보조 및 저렴한 개인 비용 703-988-2044	<b>박정훈(요한) 치과</b> Family Dentistry 마운틴 버넌 병원 근처 703-679-8959	<b>CORE 물리치료</b> 통증, 재활치료 전문 (메디케어) 김우기(안드레아), DPT 703-865-6455	<b>ASSA 종합보험</b> 메디케어 상품, 카이저 보험 현재 플랜에 관한 무료 상담 문의: 최 클라라 703-649-2110
<b>워싱턴 노인 복지센터</b> 데이케어, 홈케어 문의: 데레사 데이케어 703-963-1234 홈케어 703-850-1100	<b>CHA GROUP 앤디차 공인회계사</b> 세금보고 & 회계업무 www.GroupCha.com 703-678-8848	<b>경희 바울 한의원</b> 비만, 중풍, 통증, 내과 전문 변형식(바오로) 703-907-9299	<b>그레이스 홈 케어</b> 노인/중증 환자/산모 케어/물리치료 전문 간호 석, 박사 운영중 대표 김 아네스, RN 703-865-7370	<b>프렌즈 헬스케어/데이케어</b> 간병 및 물리치료 데이케어 서비스 임 에스더 703-819-0360
<b>윤 조셉 변호사</b> www.yoonfirm.com 교통법, 형법, 개인상해, 파산 재판전문 변호사 703-260-6060	<b>재무설계</b> 생명보험, 학자금, 은퇴연금, 롱텀케어 개개인에 맞는 플랜 설계 탁지은(안젤라) 202-431-0627	<b>DK 건강 보험</b> 1955년생 메디케어 무료상담 및 신청 정문기(윌리엄) 703-598-3316 정선화(도로테아) 703-862-5395	<b>클로이 양 부동산</b> Giant Realty Inc. 다운사이징 / First time home buyer 양윤정(카타리나) 703-865-1026	<b>GCOOP 케어셀라</b> 천연 고기능성 화장품 맑고 투명한 물광피부 약속 김은희(글라리아) 703-732-3836

교리 · 하상학교 안내

**예비자 교리(교리 기간 6개월)**

· 주일: 11:40-12:40 (하상관)  
 예비자나 전입자 또는 방문자는  
 성당 입구 봉사센터 또는  
 사무실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하상한국학교 (Hasang Korean School)**

· 정규학기 : 일반 Public School 과 동일, 매주 토요일  
 · 여름학기 : 매년 6월에 개강

**하상성인학교 (Hasang Adult School)**

· 불학기·가을학기 운영 / 매주 화·금

**하상 한국학교 / 성인학교 연락처**

· (703) 968-3070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Tel (703)968-3010 | Fax (703)968-3013

Home Page : www.stpaulchung.org

E-Mail : sthasang@gmail.com

PARISH STAFF 주임신부 백인현 (안드레아) | 보좌신부 강두영 (암브로시오) | 사도회장 황원균 (알렉산더)